

한국도로공사가 간직하는 또 하나의 보람

인.천.대.교.

오늘도 인천 앞바다에서 이는 잔물결이 인천대교 교각을 스쳐 지납니다.

우리나라 건설사에 새로운 기록을 많이 남긴 인천대교 고속도로는 착공 52개월 만인 지난 2009년 10월에 개통됐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영종도를 잇는 전체 공사규모가 21.38km이고 해상 구간만도 18.384km나 되는 우리나라 최장 교량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외관을 뽐내는 인천대교의 사장교는 그 규모가 세계 7위에 이르는 대형 사장교로서 관심을 끄니다.



한국도로공사도 이 역사적인 인천대교 건설에 참여하여, 국고구간 사업시행자로 땀을 흘렸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줄곧 고속도로 건설에 매진해온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국가경제 발전과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여 더욱 빠르고, 더욱 편하며, 더 안전한 길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우리가 떠안은 새로운 시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은 물론이요 친환경 요소까지 두루 갖춘 인천대교는 한국도로공사가 지향하는

도로·교량 건설의 새로운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교량에 관한 최신 첨단 기술과 공법을 집약하고, 날씨와 바다 지형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건설한 인천대교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건설기술인들이 그러하듯 한국도로공사가 간직하는 또 하나의 보람입니다.



마침 인천대교 개통 즈음에 그 지난했던 건설의 흔적을 정리하여 화보집을 발간한다고 하니 이 또한 반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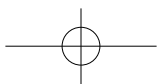
부디 이 화보집이 인천대교를 완성하기까지 쏟아낸 앞선 기술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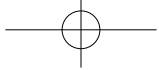
여기 참여한 건설인들의 긍지를 드높이는 데 일조하는 매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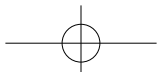
2010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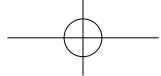
한국도로공사 사장 류 철 호





발간사 | (주)인천대교 CEO 메시지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자랑스러운 인천대교가 52개월의 대장정을 끝내고 완공되었습니다.

서해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21,38km의 인천대교는 교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자부합니다.

육지와 해상, 항공 물류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시설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인천대교는 세계의 어느 교량 사업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각종 국내외 수십 개의 최고상과 ENR,

Discovery 채널 방영 및 TV뉴스, 잡지,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건설 기술력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천대교는 이런 모든 영광과 성과를 겸허히 가슴에 묻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이 교량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국민과 한국을 찾는 세계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건설 추진과정의 공법 및 자료, 현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인천대교 화보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화보집이 국내외 토목건설 발전에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예비 건설인들의 꿈과 상상을 실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 감리단 등 건설에 참여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과

화보집 발간에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주)인천대교 사장 **김수홍**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지켜줄

인.천.대.교.

